

편물인지 직물인지 잘 알 수 없는 로덴 그린

펠트, 플란넬, 멜턴가공, 압축니트, 강축융 저지 등의 따뜻한 소재에는 공통되는 점이 있다. 양모를 겹쳐 탕 속에서 압력을 주어 두들기면 모가 얹혀서 딱딱한 덩어리가 된다. 이러한 양모의 성질을 축융성이라고 한다. 한편 덩어리를 평평하게 두꺼운 종이와 같이 하면 펠트가 된다. 모직물이나 편물을 탕 속에서 두드려 빨면 치수가 경·위사로 줄어들어 짧게 되어 바탕이 두껍고 치밀하게 된다. 모우도 생긴다. 이러한 현상을 펠트화라고 한다. 축융이라 함은 펠트화된 것을 말한다. 양모 복지, 특히 방모옷감에 있어서는 축융의 정도를 조작하여 다양한 형태의 옷감을 만들고 있는데 추동옷감의 대표격인 플라모는 천의 표면을 펠트화한 것 같이 만든 것이다.

멜턴가공된 오버코트 감은 강하게 축융시켜서 서로 얹힌 모우를 만든 것이다. 로덴 그린이라고 알려져 있는 코트의 로덴클로스의 모우도 축융에 의하여 생긴 것이다. 로덴 코트의 어깨선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실루엣이 아름다운데 로덴의 원산지는 오스트리아의 티롤지방이라고 한다. 먼저 편성물을 짠다음 편성 올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축융시킨 것인데 이렇게 강하게 압축시킨 편물인데도 언뜻 보아서는 편물인지 직물인지 잘 알 수 없을 정도이다.

멜턴은 울 방모직물을 축융하여 모우가 생긴 두꺼운 옷감이다. 모우는 기모를 하지 않고서 축융만을 한 것인데 축융에 의하여 바탕은 줄어들고 두껍게 되어 치밀하게 되기 때문에 한기를 느끼지 않고 체온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 그 외에도 튼튼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겨울용 오버코트, 그것도 롱 오버코트로부터 길이가 짧은 피코트 등에도 사용되고 있어 겨울용 코트지의 대표적인 것이 멜턴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겨울엔 롱코트가 인기가 없고 어떤 해는 길이가 짧고 가벼운 옷감을 사용한 것이 인기가 있기도 한다.

플라노 옷감에는 가볍게 축융한 것과 펠트에 유사할 만큼 강하게 축융한 것이 있다. 너무 강하게 축융한 것은 딱딱하고 상당히 두껍게 되어 바지로도 코트로도 사용하기 어렵게 되고 롱코트로 만들어도 낭창낭창한 백플레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런데 강하게 축융한 펠트상의 플라노는 이것을 블루종이나 재킷코트로 만들면 강하게 축융한 멜턴과 같이 보인다. 그 외에 재킷 코트는 디자인이 다종다양하기도 하고 폭넓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감각, 워크감각에 인기가 있다.

* 멜턴(melton) : 평직이나 사문직으로 짠 모직물로서 제직후에 천을 강하게 축융한 후, 기모시켜 천 전면에 모우를 세운 다음 더부룩하지 않게 멜턴 처리를 하여 마무리한다. 방모사만으로 짠것과 경사에 소모사, 위사에 방모사를 이용한 것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이름은 영국의 지명에서 유래한다는 설과 창시자 H.멜턴에서 유래한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양복감과 코트감으로 이용된다.